지구촌 양계뉴스

영국

양계장 계란, 방목한 닭 계란과 차이 없다

좁은 닭장에 갇혀 혹사당하는 닭보다 넓은 초지에 방목한 닭의 계란이 건강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연구팀의 결과를 인용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방사유정란이 우수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가금류 전문가 케네스 앤더슨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지난 2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닭이 생산한 계란 500개의 영양성분을 비교 분석해 두 종류의 계란이 거의 동일한 비타민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 결과 방사유정란의 노른자 색깔이 상대적으로 더 짙었지만 비타민 A, E의 함량수치가 같았고 콜레스테롤 함량도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방사유정란의 경우 양계장 계란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지만 지방 함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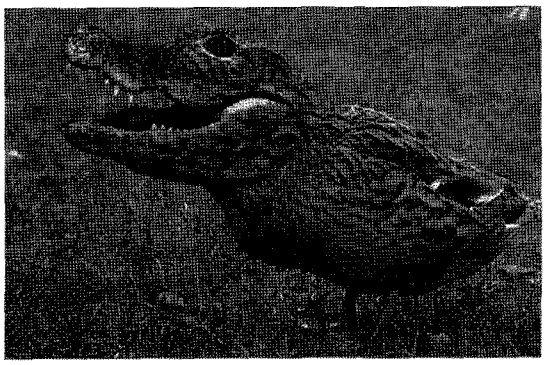
앤더슨 박사는 "계란이 어디서 생산됐던지 영양학적 차이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계란은 그동안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영국 서레이 대학 연구팀은 계란이 쉽게 포만감을 줘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매일경제

미국

"닭에 악어 주둥이?" 유전자 변형 '역진화' 시도



과학자들이 연구 중인 역진화의 모델로 꼽히는 '악어 주둥이를 가진 닭'의 가상 사진

〈사진출처 – 로켓뉴스〉

'악어 주둥이를 가진 닭'처럼 비현실적인 동물의 출현이 머지 않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몇몇 과학자들은 공룡의 재탄생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하버드대학의 과학자들이 닭의 유전자를 변형해 닭의 부리를 악어 주둥이 모양으로 변형하는 '역진화'를 실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류는 과거 공룡에서부터 진화를 거듭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특히 백악기 시절 전까지는 조류가 지금의 부리가 아닌 주둥이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조류의 유전자 패턴을 조작해 부리 대신 주둥이를 발달하도록 하는 '역진화'를 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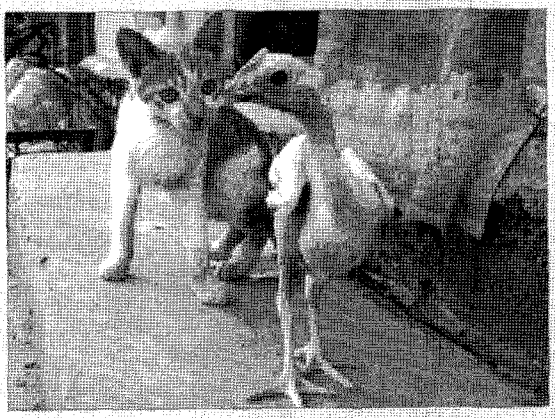
역진화를 거듭하다 보면 먼 옛날 자취를 감췄던 공룡의 재탄생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과 관련한 닭의 부화는 윤리 규정에 금지돼 있어 영화 '쥬라기 공원'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 스포츠서울닷컴

중국
'벌거숭이 닭' 화제

중국의 한 농장에 몸에 털이 나지 않는 닭이 태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24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화제의 닭은 칭다오 라오산의 농장에 있는 생후 5개월된 닭이다. 이 닭은 다른 닭들과 달리 온몸에 털이 나지 않아 허연 속살을 그대로 드러냈다.



농장주인은 "이 닭은 병아리일 때부터 몸에 털이 나지 않았다"며 "생후 10일 됐을때부터 다른 병아리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다른 생김새 때문인지 이 닭은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해 지금까지 여러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2~3kg인 닭들보다 몸집도 훨씬 작고 몸무게도 500g밖에 나가지 않는다. 지금은 다행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농장주인은 "닭이 점점 살이 찌고 있으며 무리와도 조금씩 어울리게 됐다"며 닭에게 '미스터 깃털'이라는 뜻의 '하 마오'란 이름도 지어줬다.

일대에 닭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100여명의 방문객들이 닭을 보기 위해 이 농장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도 함께 경영하고 있다는 농장주인은 "하 마오를 구경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다. 덕분에 식당매출도 많이 늘었다" 덧붙였다.

– 경향신문